소아·청소년 백신 접종 시행

익산시, 만 5~11세 24일부터 사전예약·12세~17세 청소년 3차 접종 예약·당일접종

익산시가 5~11세 소아에 대한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이달 말부터 시행한다.

시는 연일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30만 명을 돌파하고 있는 가운데 11세 이하 소아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5~11세 소아에 대한 코로나19 백신 접종 사전 예약을 오는 24일부터, 접종은 이달 3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5~11세 접종은 소아용으로 별도 제조된 화이자 백신으로 접종 간격은 8주(56일)이며, 개별적으로 사전 예약 후 보호자(법정대리인) 동반해 접종 받을 수 있다.

당일 접종은 접종방식(부모 동반 필수) 및 본인인증의 어려움 등을 고려해 의료기관 예비명단을 통해서만 가능하며 민간 SNS를 통한 접종 예약은 불가하다.

지정 위탁의료기관 6개소(△김경배소아청소년과의원 △미래와여성소아청소년과의원 △송헌섭소아청소년과의원 △예약소아청소년과의원 △우리들소아청소년과의원 △이진아소아청소년과의원)에서 접종 가능하다.

이와 함께 12~17세(2005~2010년생) 청소년을 대상으로 3차 접종을 실시한다. 2차 접종 후 3개월이 경과한 경우 3차 접종을 받을 수 있으며, 기존 3차 접종 실시기준 및 방법과 동일하게 화이자 백신으로 위탁의료기관에서 접종할 수 있다.

사전 예약은 지난 14일부터 시작되었으며 오는 21일부터 접종받을 수 있다. 의료기관에 남아있는 잔여백신을 이용하는 경우는 예비명단을 활용 및 SNS 등 당일 접종이 가능하다.

한편 확진자 급증에 따른 고위험군의 중증·사망 발생 위험, 3차 접종 후 시간 경과에 따른 접종효과 감소를 고려해 추가(4차)접종을 시행하고 있다.

현재 4차 접종 대상은 3차 접종 후 4개월이 지난 18세 이상 면역 저하자, 요양병원·시설의 입원·입소자, 정신건강 증진시설의 입원·입소자나 종사자이며, 해외 출국이나 입원·치료, 집단감염 우려 등의 사유가 있다면 3차 접종 3개월 후에도 가능하다.

/익산=이득훈 기자

2022년 새만금·군산 CEO 경제포럼 개최

지역기업 역량강화 · 상호협력 네트워크 형성

군산시는 2022년 새만금·군산 CEO 경제포럼을 오는 22일 개최한다고 밝혔다.

시는 전북산학융합원(원장 나석훈)과 군산지역 기업 경영자들의 경영기술 관련 정보 교류를 위해 지난 2013년부터 새만금·군산 CEO 경제포럼을 개최했으며 현재 제36회까지 경영 노하우 소통의 장으로 운영해 왔다.

CEO 경제포럼은 회원을 대상으로 선호 강사를 섭외해 연 4회 분기별로 포럼을 개최하고 있으며 기업경영 도움, 강의기법 등 포럼에 대해 95%이상의 만족도를 보이고 있다.

특히, 존리 대표(메리츠자산운용), 김경일 교수(아주대학교 심리학과), 공병호 소장(공병호연구소) 등 각 분야의 유명 전문가들을 초청해 국내외 사회, 경제적 이슈 현황에 대해 강의·토론을 진행해 참가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지난 2021년에는 코로나19로 인해 2회로 축소 운영됐지만 올해는 오는 22일 제37회 새만금·군산 CEO 경제포럼을 시작으로 코로나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총 4회 정상 추진할 예정이다.

제37회 경제 포럼은 '강대국에 둘러쌓인 한반도의 숙명'(한명기 명지대학교 교수)이라는 주제로 실시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포럼을 통해 지역기업의 역량이 강화되고 기업 간 최신 국내외 현안 정보를 공유하는 등 상호협력 네트워크가 형성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기업들의 경쟁력 강화와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다양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군산=남현봉 기자

군산 새만금 어린이랜드 개장

군산시는 오식도동에 위치한 '군산 새만금 어린이랜드'가 개장해 오는 11월 30일까지 운영한다고 15일 밝혔다.

새만금 어린이랜드는 새만금 방조제 유휴부지를 활용해 세계 최장 방조제(33.9km) 기념과, 새만금을 찾는 방문객과 어린이들에게 '볼거리·즐길거리' 제공하기 위해 2017년 12월 조성됐다. 지난 2018년 5월 최초 개장한 이후 매년 동절기를 제외한 3월에서 11월까지 운영 중에 있다.

5만6,000㎡의 넓은 공간에 조성된 새만금 어린이랜드는 새만금을 200분의 1로 축소해 만든 생태연못과 새만금 방조제를 형상화한 170m의 데크로드가 있으며, 네트놀이대, 조합놀이대 등의 놀이터, 상자형 쉼터, 잔디광장, 나비모양 화장실 등 어린이들이 맘껏 즐기고 뛰어놀 수 있도록 조성됐다.

특히, 전북 최초로 설치된 바운싱돔(공기주입 놀이시설)과 RC카(무선조종자동차) 체험은 많은 어린이들의 호기심을 자극하면서 가족단위 방문객에게 큰 호응을 받아왔다. 어린이랜드 개장 후 코로나 이전 6만여명이 다녀갔으며, 코로나 이후에도 매년 2만여명이 꾸준히 방문하고 있다.

넓은 공간에 비해 그늘이 부족하다는 방문객들의 아쉬움으로 금년에는 바운싱돔 주변에 막구조 그늘막을 추가 설치(2개소, 185㎡), 보다 나은 놀이환경과 편의를 제공할 예정이다.

백운초 새만금에너지과장은 "군산 새만금 어린이랜드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부합하는 어린이 놀이 공간이다"며, "이번 어린이랜드 개장을 통하여 겨우내 움츠렸던 아이들의 동심을 깨우고, 모험심과 상상력을 자극하는 놀거리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군산=남현봉 기자

익산교육 발자취, 기록으로 말하다

제2회 익산시 민간기록물 수집 공모전 개최

익산시는 익산의 변화와 교육, 생활상의 기록을 함께 나누는 제2회 익산시 민간기록물 수집 공모전을 개최한다.

시는 오는 15일부터 내달 19일까지 '익산교육의 발자취, 기록으로 말하다'라는 주제로 개인이나 단체가 소장 중인 익산의 기록물을 수집한다.

이번 수집 공모전은 지역 제한 없이 전 국민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교육, 역사, 문화, 마을, 풍속 등을 알 수 있는 문서류, 시청각류, 박물류의 기록물에 대해 기획주제와 공통주제 2개 분야로 진행된다.

기획주제인 '익산의 교육' 부문의 경우 ▲익산의 교육 모습을 알 수 있는 기록물 ▲공문서, 성적표, 학교신문, 졸업사진, 학생증 등 ▲유치원, 학교, 학생, 교사, 학부모 등 교육 관련 자료 ▲향교, 서원, 서당 등 교육기관 자료 ▲평생교육, 문해교육 자료 등을 수집한다.

공통주제인 '익산의 기록' 부문에서는 ▲익산의 역사, 문화, 마을, 동네의 역사 등을 간직한 기록물, ▲시민들의 일상, 풍속, 생활모습 등 전승가치가 있는 기록물 등을 수집한다. 기획주제와 공통주제 모두 응모 가능하다.

신청 방법은 익산시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은 신청서를 작성해 이메일(messe83@korea.kr)로 제출하거나 우편 또는 익산시 행정지원과로 방문해 해당 기록물을 제출하면 된다.

시는 심사를 거쳐 수상작을 선정하고, 오는 7월 중 시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할 예정이다.

수상작은 10월 중 전시할 예정이며, 수장고에 보존하고 추후 익산시 홍보·연구·교육 자료 등으로 다양하게 활용된다. 수상작에 대해서는 최소 10만원에서 최대 100만원의 상금을 지급한다. 시 관계자는 "시민들이 간직한 소중한 기록과 기억이 모여 익산의 고유 콘텐츠로 재생산되기를 기대한다"며 "또한 올해의 경우 이리농림학교 설립 1백주년을 맞이하는 해이기도 하고, 교육이 시민의 삶과 기억 속에서 함께 해주는 의미도 크기 때문에 익산 관련 기록물이 많이 응모될 수 있도록 시민들의 참여와 관심을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공모전 관련하여 자세한 사항은 익산시 홈페이지(www.iksan.go.kr〉시민참여〉민간기록물)와 행정지원과 기록물관리계(☎063-859-5713, 5723, 5736)로 문의하면 된다.

/익산=이득훈기자

군산시의회 제244회 임시회 개회

군산시의회(의장 정길수)가 15일 제24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3일간의 의정활동에 돌입했다.

시의회는 이번 임시회를 통해 의원발의 3건과 군산시 법령불부합 내용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 등 10건의 부의안건 처리와 간담회를 실시할 예정이다.

15일 1차 본회의에서는 2021 회계연도 군산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과 군산시의회공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및 군산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하고 원안가결했다.

2021 회계연도 군산시 결산검사위원에는 김중신 시의원(대표위원), 김세종 세무사, 이영욱 세무사, 전순미·서순만 퇴직공직자 등 총 5명이 선임됐다.

이어 배형원·김영자·김중신 의원의 5분 발언이 있었다.

김영일 부의장은"지금 군산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지역경제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며"의회와 집행기관 모두 합심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 복리증진을 위해 힘써 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로 인한 코로나19 확진자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며"아직 어디까지가 정점일지 모르는 불확실한 상황이기 때문에 시민 여러분께서 방역수칙을 준수해 줄 것"을 덧붙였다.

/군산=남현봉 기자

지역 소식통

군산시의회, 지방선거 관련 의원 역량 강화교육

군산시의회(의장 정길수)가 정치자금법 개정에 따른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문화 조성을 위해 시의원을 대상으로 역량 강화교육을 실시했다.

시의회는 15일 군산시의회 11층 소회의실에서 K도시문화연구소 김종연 사무처장을 초빙해 처음 실시하는 지방의원 예비후보 후원회(펀드) 설명, 후원인의 정치후원금기부 및 선거비용 제한액 이해, 선거에 도움이 되는 후원회 조직화와 모금방법 등 사례를 중심으로 교육했다.

특히 ▲후원회 설립절차 ▲후원회 등록서류 작성방법 ▲후원금 모금방법 및 준수사항 ▲정치자금영수증 발행 ▲후원회 변경등록·해산 등 구체적인 사례 중심으로 내용이 꾸며져 이해도를 높였으며 의원들은 올바른 후원회 설립 등 그동안 궁금했던 사항을 질의하며 세부적인 내용을 꼼꼼히 살폈다.

/군산=남현봉기자

군산시 · 산학융합원 탄탄기업 지원 협약

군산시는 전북산학융합원과 지역 청년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청년의 안정적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지역 기업들과 '만나보자 미래성장 탄탄기업' 협약식을 가졌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만나보자 미래성장 탄탄기업' 협약은 기업이 청년들을 정규직으로 고용해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면, 청년을 고용한 기업에게 2년간 채용한 청년의 인건비 80%(최대 월 160만원)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협약을 통해 지원을 받은 기업은 청년의 안정적인 고용 및 역량강화 등을 보장하고, 인건비 지원기간 종료 후에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해당 청년을 계속 고용해야 한다.

협약의 주요내용은 △사업 참여 주체별 지위와 역할, △기업 및 청년근로자의 의무 등 사업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 등이다. 당일 사업 담당자교육과 부정수급 관련 교육도 함께 진행했다.

/군산=남현봉 기자